

〈特別寄稿〉

情報社會와 情報倫理

박 한 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차 례□

- I. 정보사회의 특성
- II. 정보윤리의 현황과 문제점
- III. 정보윤리의 문제현황
- IV. 이용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 V. 정보윤리의 교육

I. 情報社會의 特性

정보사회의 발전은 우리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다. 현재의 수준과 발전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情報社會가 展開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政府의 중요한 政策으로 情報社會를 고도화 시키고 있다. 정보사회는 경제와 사회를 發展시키는 特性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과정에서 많은 否定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윤리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의 기술과 산업의 빠른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 人間生活의 모든 면을 變革시키고 改善시키고 있다. 教育과 個人生活은 컴퓨터에 의존도가 높아진다. 알파벳과 단어와 숙어 등의 基礎教育에서 과학과 응용 등 研究部門에까지, 그리고, 일기예보, 교통정보, 뉴스 등 生活情報에서 業務理까지 日常生活에 컴퓨터는 必須的인 道具가 된다.

情報를 生産, 蒐集, 加工, 保管, 交換, 利用하는 정보산업은 知識産業으로서 國家行政과 國家産業의 核心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사회는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가사자동화 등으로 知識産業과 서비스 産業을 발전시켜서, 일상생활은 더욱 더 便利해 지고, 창출하는 價値가 높아지며, 社會發展은 加速化된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減少 시키고, 教育機會를 擴大하고, 都市와 農村에서 均等한 文化生活이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감소하여,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화는 同質化되는 반면, 독특한 교육문화는 더욱 발전하여, 同一文化의 幅이 擴大되지만 동시에 多樣的한 固有文化가 함께 발전한다.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져서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에 欲求水準이 높아진다. 따라서, 政治와 行政에 要求도 커져서 官僚主義의 硬直性은 쇠퇴하고, 奉仕하는 政治와 行政으로 발전한다.

사람들의 지식과 소득이 높아지고 시간여유를 갖게 되어, 水平的 社會關係가 발전하고, 정치수준도 높아져서 議會民主主義의 代議形態는 參與民主主義 또는 情報民主主義 요소를 점점 더 받아들여지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현상의 전개로, 국경이 무의미하게 되는 世界化는 더욱 촉진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각각의 發展과 衰退가 加速되어 간다.

정보사회는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반면에, 그 진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역기능의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나 기업정보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공개되어 私生活이나 企業秘密이 침해될 수 있다.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전산망, 기업전산망등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출되어 사생활이 침해

되기도 하고, 기업이 손해를 볼수 있다. 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지리전산망등이 구축되면서 국가의 기밀이 외국에 유출되어 國家安保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만들어 지고, 저장되고, 제공되므로 개인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보다 개인의 情報選擇에 混亂을 加重시키거나, 選擇能力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情報格差로 不平等 問題가 생길수 있다. 개인이나 조직간에 지식, 직업, 경제력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非能率과 非效率의 問題가 발생될수 있다. 따라서 컴맹 즉 컴퓨터문맹(commputer Illiteracy)이란 말도 생겨났다.

컴퓨터와 정보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컴퓨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體的인 健康問題와 精神障礙를 초래할수 있다. VDT(Video display terminal)증후군이란 말이 생겨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와 정보교환의 발전으로, 재택근무, 재택교육, 재택진료, 재택구매, VOD등이 실용화되면서, 사람들은 서로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 人間關係는 소원해 지고, 情不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自動化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쉽게 할수 있도록 되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自動化로 失職을 초래할 수 있다.

컴퓨터 犯罪와 非倫理問題가 增加할 수 있다. 정보의 도용, 변조, 프로그램의 도용, 수정, 그리고 바이러스등의 문제이다.

통신위성이나 프로그램 등에 의한 文化的 從屬現狀이 국가간이나 민족간에 일어날 수 있다. 발달된 정보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自國의 文化를 전파하는데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상 정보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은 범죄와 비윤리문제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分野와 範圍를 推定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범죄와 정보윤리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II. 情報倫理의 現況과 問題點

우리가 現實世界는 情報通信의 技術과 産業의 발전으로,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克服하면서 世界가 하나

의 거대한 情報社會가 되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영상전화, 영상회의,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재택구매 등이 실용화 되면서, 우리는 日常生活와 生活規範도 새롭게 創造하며 살아가고 있다.

情報의 供者와 利用者가 늘어나고, 情報量 또한 급격히 增加하는 情報社會의 進展에 따라, 여기서 適合한 價値觀과 倫理觀이 함께 形成되어, 情報倫理가 情報社會의 基盤을 이루어야, 우리는 人間으로서 品位와 福祉를 누릴 수 있고, 건강한 未來社會를 가꾸어 갈 수 있다.

情報倫理는 有線과 無線을 통하여 交換되는 選擇的인 個別情報를 대상으로 한다. 유선 및 무선전화, 컴퓨터통신과 자동응답통신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인문, 출판, 영화 등과 같이 大衆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제공되지만 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同一한 情報가 방송, 극장, 신문, CATV, VOD, VIDEO, CD, 컴퓨터망, 전화방송 다양한 媒體를 통하여 提供되고 交換되기 때문이다.

이들 정보를 심의하는 기구도 문화체육부산하의 공영윤리위원회 심의하는 기구도 문화체육부산하의 공영윤리위원회와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공보처산하 방송위원회와 종합 유선방송위원회, 체신부산하의 정보윤리위원회(정보통신진흥협회), 기타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프로그램점검위원회(한국전자유기장협회)등 여러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 각각의 임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特性 때문에 統一性, 一貫性, 그리고 率性에 많은 問題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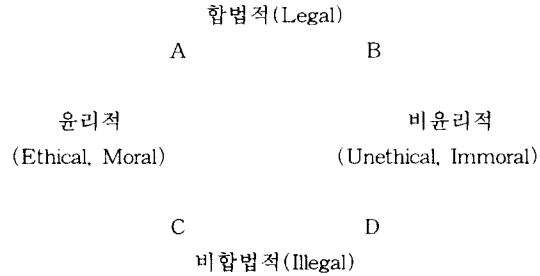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委員會가 각각 機能을 발전시키면 필요한 시기에 自然히 役割分擔이 되거나 統合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보윤리의 특성, 즉, 대중적이기 보다는 個別的이고, 일방적이기 보다는 相互的이며, 보편적이기 보다는 選擇的이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의 個別的인 人格과 價値觀에 의존하는 정보윤리를 中心으로 情報社會의 特性, 情報倫理의 現況과 問題點들을 검토하고, 重要性을 재인식하여야 하겠다.

2-1. 情報倫理와 關係法令

정보윤리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특성에 따라 변하고, 동태적인 속성을 갖지만, 判斷基準에는 ①공개적의 의사, 의무와 가치를 다루는 私生活(Privacy)保護, ②정보의 출처, 신빙성, 피해성과 그 책임을 다루는 正確

性(Accuracy), ③정보의 소유권, 교환대가, 공개조건 등의 기초가 되는 所有權(Property), ④정보획득 조건과 이용권의 기초가 되는 接近性(Accessibility)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倫理問題인가 法的問題인가 하는 성격규명은 ①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A) ②합법적이나 비윤리적인 영역(B) ③비합법적이나 윤리적인 영역(C) ④비합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역(D)이 있다.



앞에서 ①-A와 ④-D의 영역은 분명하지만, ②-B와 ③-C에 속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異見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윤리성과 합법성과 합법성의 구분이 어렵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倫理成은 자연히 合法性의 문제와 同時에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정보관계 法筭이 未備한 상태이고, 더구나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범죄와 윤리문제를 豫測하고 立法過程을 거쳐서 미리 法筭을 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먼저 倫理問題로 다루어 지다가, 必要性이 인정될때 法制化되는 과정이 짧아졌고, 앞으로 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범죄와 윤리문제가 발생되고 나서의 死後對策으로는 이미 발생한 잘못은 회복될 수 없고, 앞으로 더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豫防가 필요하다는 것과 犯罪豫防對策과 倫理觀이 청소년들의 컴퓨터교육에 義務의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情報倫理의 問題現況

지금까지 정보윤리가 왜 중요한가, 어디까지를 정보윤리의 範圍에 포함해야 하는가, 倫理와 非倫理의 限界는 어떤 基準으로 해야 하는가, 法筭과의 關係는 領域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사회에 진입해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 응용분야와 계층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倫理問題의 所在가 어디인지, 어떤 무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한지도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보기술과 산업의 발전, 응용분야와 이용계층의 확대 등 情報社會의 進展에 따라 情報倫理문제도 擴大되고 變化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윤리문제의 사례들을 김기태박사의 『정보이용과 이용자 보호 대책』94. 6. 24』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3-1. PC통신 언어폭력성 폐해사례

정보사회의 필수도구인 퍼스컴의 보급 및 활용이 확대되면서 PC정보의 비밀, 익명성에 편승, 청소년사이에 난잡하고 폭력적인 메시지가 여과없이 소통, 『성폭언』에 충격을 받은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학가의 『대자보』가 『PC토론』으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실정법에 저촉되는 메시지가 퍼스컴속에 자유롭게 나돌고, 음란물이 범람, 이에 관한 대응책을 놓고 사법당국이 골치를 앓는 등 퍼스컴 부작용이 잇달고 있다.

3-2. 음란성 폐해사례

사실 전자게시판(BBS=Bulletion Board System)인 『종이호랑이』를 통하여 7백여명의 회원들에게 2백여종의 음란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 사람은 부유집의 작은 아들(14세)인 중학교 2년생인 장군이였다. 장군은 국민학교 4학년부터 컴퓨터를 사용하고, 전국 중학생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2년 계속 입상한 컴퓨터박사이며,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다. 장군은 지난해 5월부터 자기방의 방문을 걸어닫고, 음란프로그램을 즐기고 무료로 전송해서 회원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사설 BBS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중 일부가 외국음란사설 BBS와 전화로 간단히 연결하여, 자극적인 음란물을 받아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들에게 월5천~5만원의 회비를 받는 상업형 BBS가 등장하여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윤리실무위원회』는 『불건전 정보 신고센터』의 운용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윤리심의기준』을 공중 PC통신 사업자는 물론 사설 BBS사업자에게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국 PC통신의 『하이텔』, 데이콤의 『PX서브』, 포

스태이타의 『포스터브』에서도 자체적인 음란프로그램 모니터활동을 강화하고, BBS사업자들도 협회를 만들어 협조할 계획이다.

이런 문제에 법적인 대응은 한계성이 있고, 건전한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체신부와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적대응보다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계도해 가고 있다.

3-3. 비밀번호(ID) 노출 폐해사례

데이콤의 『천리안』에 등록된 청와대비서실의 사용자이름(ID)을 도용해 은행과 정보통신기업 등 12개 기관의 관련비밀을 빼내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데이콤이 대통령직인수위 이름의 문서만을 근거로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비밀번호를 변경시켜 줌으로써 발생했다. 컴퓨터통신망의 철저한 관리와 첨단정보통신 매체의 심각한 역기능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래 해커(Hacker)란 컴퓨터에 강한 흥미를 갖고 불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속어이다. 최근에는 타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도용,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유출, 손상시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들은 전세계 130여국 70여만대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 연구소의 컴퓨터시스템을 거미줄 같이 연결한 세계 최대 학술망 『인터넷』을 해킹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6세 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소의 컴퓨터시스템에 들어와서 자료를 지난 3월 6일쯤 몰래 빼내간 것으로 알려져, 자료를 절취당하고도 무려 8개월동안 해커의 침입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학기술처는 5일 국내자료가 해커에 의해 옮겨진 것으로 보도된 미국 로욜라 공개발전센터와 접촉, 이 연구소 컴퓨터에 3월 6일자로 한국의 한 연구소 자료가 들어와 있음을 같은달 9일 발견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처는 오는 7일 과거처 산하 연구단지 전산관계자 회의를 소집, 전산망 특별 보안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면, ①서울대 등 40개 국공립대학이 가입한 교육전산망 ②시스템공학연구소 등 70개 국책연구소와 대학이 가입한 연구전산망 ③한국통신의 『한국인터넷』 ④천리안, 나무누리 등 민간PC통신망 등 4경로가 있다.

일본 통산성은 컴퓨터에 축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침입과 파괴 등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도를 가능하도록하는 등 정보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법체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컴퓨터의 급격한 보급으로 최근 개인의 축적된 정보 등에 멋대로 침입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3-4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데이콤측에 의하면 지난 15일 상호 천리안 게시판에 현대철학동우회가 띄운 메시지 가운데 『노사명 중앙재건위의 입장』이라는 제목아래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내용 등의 글들이 들어 있어 즉시 삭제된뒤 오후 5시께 이 동호회의 통신망을 잠정 폐쇄했다가 과격표현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고 16일 상호 1시 서비스를 재개했다. 데이콤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은 게재 제한이나 삭제 등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폐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호회측은 『문제의 글은 합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사회 과학서적에서 발췌한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안기부 등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학술토론을 방해하는 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3-5. 범죄이용사례

임영진씨(27, 고려대 신방과 4년) 『대화도중 아무런 이유없이 독설을 퍼붓고 대화방을 빠져가거나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통신망에 띄우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이를 통해 음란물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있으며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기혼남녀가 불륜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후면 거의 컴퓨터통신을 즐긴다는 장모씨(30)는 지난 5월 하이텔전자게시판을 통해 『강성진』이라는 가명으로 등록한 후 컴퓨터부품을 싸게 판다고 해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했으나 불건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

김경예양(22, 대학생)도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임가로 소프트웨어를 사려고 제작자에게 2만원을 보냈으나 정작 받은 것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털어 냈다.

그리고 『Neopol』이라는 사용자번호를 이용해온 이모씨(31, 직장인)의 경우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대화방에 욕설과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바람에 회사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도 계속 도용당하여 컴퓨터통신 이용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데이콤의 이창범사업관리과장(41)은 『이용자들의 통신과정을 감시하는 모니터요원을 10명 배치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25만명이나 돼 스스로 찾아 내기는 역부족이고 대부분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3-6. PC중독증 사례

사무실과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젊은이들 중에는 『컴퓨터 중독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동 세브란스병원의 이홍식박사(연세대 정신과교수)는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컴퓨터를 오래 상대하다 보면 기계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게 되고, 심한 경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짜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서 『컴퓨터에만 매달려 소홀해 지기 쉬운 대인관계를 보다 원만히 하고, 적당한 운동과 대외 활동을 통해 기계적인 생활을 탈피하는 것도 증세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3-7. 전화폭력과 성폭력특별법 적용사례

이모씨(38. Y학원장)는 12일 오후 2시 이모양(14. 중3년)집에 두차례 전화를 걸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담패설을 한뒤 이양을 불러내 만나려다 구속되었다.

경찰이 첫 적용한 특별법중 『통신매체이용 음란』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등 통신매체를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도서,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때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IV. 이용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4-1. 관련법규 현황

통신매체, 제공자관습, 이용자관습 등에 대한 해로운 逆機能의 弊害를 防止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실문제를 포괄할 수 있고, 앞으로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이 나타날 문제들에 관한 대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傳門의이고 綜合的인 法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② 미성년자 보호법
- ③ 사회교육법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⑤ 전기통신기본법
- ⑥ 전기통신사업법
- ⑦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⑧ 전과법
- ⑨ 청소년기본법
- ⑩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⑪ 통신비밀보호법
- ⑫ 형법 제243조 및 제24조

4-2. 이용자를 위한 심의활동 현황

불건전한 정보내용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심의활동을 하는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사나 정보윤리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92년 7월 3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10일에는 정보윤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신청해 오는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사전심의하여 결정해 주고 있다.

- ① 외래문화 및 저속문화의 조장우려가 있는 외국문화, 비디오, 컴퓨터게임, 잡지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 불가
- ② 바른 국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등의 문구지양
- ③ 사행심 조성의 우려가 있는 정보내용은 불가
동 위원회가 불건전 정보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반국가적인 내용
- ② 인권침해 내용
- ③ 인명경시 내용
- ④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 내용
- ⑤ 공개금지를 어긴 내용
- ⑥ 성·음담패설내용
- ⑦ 위화감 조성 내용
- ⑧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 내용
- ⑨ 공중도덕과 사회원리 저해 내용
- ⑩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 ⑪ 저작권 위배 내용
- ⑫ 의약등의 오·남용 조장 내용
- ⑬ 불건전 오락물등의 내용
- ⑭ 고의적으로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 ⑮ 음성에 의한 타통신매개성 정보
- ⑯ 기타 정보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불건전 정보

동 위원회는 사전심의 외에 모니터링을 통해 음성 정보서비스의 불건전사례들을 색출해 내고 필요하면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받게 한다.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윤리위원회가 건전정보유통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情報 提供者와 利用者의 數나 領域이 폭발적으로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활동만으로 국가의 올바른 情報社會의 文化를 創出해 나갈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V. 情報倫理의 敎育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정보관계법령이 아직은 未備하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사회에서 發生할 犯罪와 倫理問題는 먼저 倫理의 次元에서 다루어 지다가 법률제정의 과정을 밟아 法制化될 것이다. 따라서, 윤리성과 합법성을 구분하지 않고, 情報倫理의 敎育을 위한 提言을 한다.

5-1. 정보윤리가 지향해야 할 價値를 분명히 하자.

정보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정보윤리를 확산시키고, 교육시키는 목표가 될 가치를 분명히 하여야 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價値는 實踐主體가 되는 個人(個人價値), 개인이 소속된 會社(會社價値), 개인과 사회가 지향하는 未來(未來價値)이다. 個人에게는 올바른 말과 글 그리고 영상문화를 함유할 수 있게 되고, 삶의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社會는 윤리, 도덕, 문화의 보존과 창달로 선진국인 사회문화를 창출하여 높은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未來를 위하여는 창의적인 아동교육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어와 숙어등의 기초교육에서 상상력, 응용력의 교육에까지 정보윤리와 함께 교육시킴으로서, 아이들의 창조 능력과 선택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보윤리의 교육과 확산이 目標로 해야 하는 價値는 말로서 쉽게 表現되고, 理解되며, 生活化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目標價値表現의 例로 意見을 제시 한다.

個人價値 : 『나는 情報生活를 習慣化하며, 知識을 價値化하여 삶이 水準을 높인다.』

社會價値 : 『나는 情報生活를 통하여, 知識이 향상되고, 先進化되는 社會建設에 寄與한다.』

未來價値 : 『나는 兒童敎育에 努力하며, 말과 글과 영상의 文化水準을 높이고, 想像力과 應用力을 길러주며, 創造能力과 選擇能力을 開發시킨다.』

5-2. 구체성이 있는 倫理綱領을 만들자.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이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강령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 예로서, 미국 컴퓨터 윤리연구소의 컴퓨터윤리 10계명을 들수 있다.

- ① 다른 사람에게 해가되는 일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
- ② 다른 사람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 ③ 타인의 컴퓨터 파일을 훔쳐보지 말라.
- ④ 도둑질을 하기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
- ⑤ 거짓 사실을 퍼뜨리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
- 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도 복사하지도 말라.
- ⑦ 타인의 허락이나 적절한 보상없이 남의 컴퓨터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 ⑧ 자신이 제작 또는 구상중인 시스템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항상 생각하라.
- ⑨ 동료와 이웃을 고려하여 존중하면서 사용하라.

5-3 가정, 학교, 사회에서 敎育할 수 있는 敎材를 만들어 보급하자.

정보윤리를 가르칠 敎材는 정보윤리만을 내용으로 한 敎材와 각 상마다 관계되는 윤리사항을 포함시킴 컴퓨터敎材를 만들어 보급한다. 다만, 많은 事例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흥미롭게 만들어야 보다 효과적인 敎材가 된다.

敎材는 敎授나 專門家들이 作成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敎材를 작성할 동기를 마련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각 부처, 관계기업, 사회단체등이 정보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教育部에게 일반 敎材의 편성에도 깊이 고려하게 하고, 주무부처인 遞信部와 關係企業에게 法적으로 그리고 制度的으로 일정한 義務를 갖게 하여야 한다.

5-4. 컴퓨터와 윤리교육을 國家運動으로 추진하여 情報社會를 促進시키자.

- ① 공무원, 군인, 기업종사자, 가정주부, 학생, 민간인을 대상으로, 컴맹퇴치운동과 정보윤리확립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자.
- ② 公務員은 전산과 윤리교육과정을 두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서 행정電算化와 對民奉仕의 水準을

올리고 情報文化를 先導하게 하자.

③軍人は 훈련과정에서 전산과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행정, 작전과 통제등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전산화시키자. 50년대에 문맹을 퇴치하여 국민의 수준을 높였던 경험을 살려서, 컴맹을 퇴치하고, 윤리의식을 공고히 하여 軍現對話와 바람직한 情報社會建設에 貢獻하도록 하자.

④企業중사자에겐 업무전산화를 강력히 추진시켜 經營合理化와 競爭力을 강화시키자. 특히, 대기업은 납품과 판매거래선인 中小企業을 支援할 의무를 가지고 강력히 전산화를 추진시키도록 하고, 정보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중소 SW업체에 施設과 裝備를 지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전산과 윤리교육을 시키게 한다.

⑤家庭主婦에게 전산과 윤리교육을 시켜서 가정의 정보화를 촉진시키자.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듯이 전산과 윤리교육도 가르칠수 있게하여, 가정의 정보화를 이룩하도록 하자.

정부, 관계기업, 사회기관들이 앞장서서 주부교육을 시켜야 한다.

가정의 정보화가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며, 선진적인 정보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이 '91년에 주부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여, 지난 10월말까지 25회에 걸쳐 1천여명의 주부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자신문, '94. 11. 7. 참조)

서초구청도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체육실, 전시실, 컴퓨터와 요리실등을 두어 주부들을 교육시킬 계획을 발표했다.(조선일보, '94. 11. 5. 참조)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의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확대되고 정보윤리교육이 전산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미래의 정보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⑥學生들에게 국민학교부터 전산과 윤리과목을 과학적으로 교육시키자.

어려서부터 말과 글을 분명히 가르치고, 영상을 통한 상상력을 키워주며, 창조능력과 선택능력을 키워주면 선진 한국의 기초가 된다. 여기에 정보윤리를 함께 가르쳐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하고, 범죄나 비윤리적인 역작용을 예방할 수도 있다.

⑦市民團體가 자발적으로 情報倫理 擴散運動을 展開하고, 시민의 告發精神을 함양시키도록 하자. 민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윤리 확

산운동을 주도하고, 사회범죄의 고발과 같이 정보윤리문제도 시민들이 고발하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보의 특성이 개별적이고, 상호적이며, 선택적이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언론이나 방송 등과는 다르므로 국민들의 고발정신이 필요하다.

참 고 자 료

1. 김기태, "정보이용과 이용자 보호대책," 정보통신진흥협회, 1994. 6.24
2. Henderson, V.E. "The Ethical Side of Enterprise," Sloan Management Review, Spring 1982.
3. Mason, R.O. "Four Eth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Age," MIS Quaretyly, Vol 10, No.1(1986).
4. 컴퓨터윤리 10계명(번역본), 미국 컴퓨터윤리연구소, 1992.
5. 윤리강령(시안), 정보윤리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내), 1993. 6. 2.
6. 정보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중간보고), 정보윤리조사연구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내), 1994. 11.
7. 박한규, "21세기의 한국"(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1994. 6. 30.



박 한 규

- 한국통신학회 회장
-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